

민간경비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이 정 덕* · 임 유 석**

〈요 약〉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는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과학적이고 최첨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대표적인 범죄예방의 최첨단 전략이 민간경비영역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첨단기술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연적 감시원리, 접근통제, 영역성, 감시강화 활동의 지원, 유지 및 관리의 원리를 강조하는 다각적인 범죄예방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방어공간의 영역설정은 민간경비와 CPTED의 영역과 활동의 영역을 결정지으며, 현실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과 방어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접근 시각과 방법을 달리하는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적인 측면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동질적인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공간과 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와 CPTED는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하고, 특정행동에 해당하는 범행과 그 기회를 억제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범죄예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이와 관련된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민간경비와 CPTED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범죄예방에

*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주저자)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교신저자)

대한 접근 방법과 주체 그리고 규모의 다양성, 둘째, 민간경비와 CPTED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영역 설정, 셋째, 상호의존적인 민간경비의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발전과 범죄예방에 대한 CPTED의 방어공간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 민간경비, 기계경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범죄예방, 범죄의 두려움

목 차

- I. 서 론
- II. 민간경비와 CPTED의 특성 및 한계
- III.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성과 융합 필요성
- IV. 민간경비와 CPTED의 상호의존성
- V. 결 론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급속히 성장하게 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민간영역에서의 경비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공간이 되었지만, 도시의 성장과 전통적인 분화에서 초래되는 범죄기회를 증가시켰다. 전통적으로 범죄예방과 관련해서는 공경비의 역할을 담당해왔던 경찰의 고유권한으로 설정되어왔고, 나아가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관리자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사회의 발전 속도를 능가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질적·양적 증가에 대한 경찰활동의 대응은 전반적인 한계점이 나타났고, 민간영역에서의 치안서비스 공급의 확대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는 전통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사적인 공간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영역과 관련된 대규모의 사적인 공간들은 범죄의 온상으로 나타났고 범죄의 대상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 중요시설 마저 민간 시큐리티의 방범장치를 적극 이용하며 민간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공배완, 2010: 66-67).

일반적으로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라 함은 “여러 가지 위해(危害)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인에게 경비 또는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공하는 개인 또는 영리기업의 행위”를 의미한

다(NACCJSG, 1973: 12).

하지만 민간경비의 역할과 권한 및 주요업무는 각 국가가 직면한 시대적·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Arthur & Peter, 1997: 3), 나아가서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제공해야할 치안서비스를 민간영역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이상 치안서비스는 본질상 공공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공공성과 민간경비업체의 영리성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에 따라 양자를 조화롭게 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

이에 민간차원에서의 범죄에 대한 예방과 효율적 대응방안의 자발적인 역할도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고, 최근에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전문적 방법 및 민간경비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이며, 범죄의 심각성이 악화되면서 일반인들도 범죄예방과 위협발생 방지 및 제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에 국한된다는 업무특성상의 한계를 지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권한의 한계와 물리적 강제력 행사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업무의 특성상 공공성뿐만 아니라 영리성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리성을 강조할 경우 치안서비스 주체로서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 또한 높아지며, 이는 곧 민간경비업의 고객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영리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공공성과 영리성의 상호 양립 하에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규제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강조한 규제적 측면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박동균·이민형, 2011: 15-16).

한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CPTED, 이하 'CPTED'라 함)은 "적절한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환경의 방어적 설계(defensive design)를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여줌으로써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CPTED는 물리적 또는 상황적 범행기회 구조와 관련하여 건축 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활용이 범죄발생의 감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을 줄일 수가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Crowe, 2000: 46-47). 이렇듯 CPTED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설계(socially responsible design)를 지향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 볼 수 있고, 건축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를 감소

시키고 이를 위해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취해야 할 윤리적인 접근을 의미하기도 하고(Gamman, 2007: 75), 이러한 설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삶의 영역을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CPTED는 범죄예방에 있어 전통적인 접근과는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이며, 기존의 범죄발생 대상을 범죄자에서 환경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CPTED는 범죄예방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서 범죄의 형태가 다르면 그러한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적 결정요소도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전통적인 범죄예방이 넓은 범주의 일반적인 범죄예방이라면 CPTED는 특정행동을 억제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범죄예방이라 할 수 있다(김영환, 2008: 274-275).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접근의 시각과 방법을 달리하는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적인 측면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중첩되는 동질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민간경비와 CPTED의 특성과 한계점에 대해 살펴본 후 범죄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동일한 이상 융합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민간경비 영역에서의 범죄예방과 CPTED 영역에서의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사례연구의 선행연구는 어느 정도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두 영역에 대한 동시적 접근에 대한 연구와 사례는 부족하다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이라는 공통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의존적인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I. 민간경비와 CPTED의 특성 및 한계

1. 민간경비의 특성 및 한계

1) 민간경비의 특성

민간경비산업은 1960년대 미 8군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시작되었고,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수차례의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급성장하여 2009년에는 3,906개 업

체에서 146,805명의 경비원이 종사하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단순한 인력 위주의 경비에서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경비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전반적인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육성하고 있으며, 민간경비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 신입교육기관,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기관,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민간경비 교육을 내실화·활성화하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경찰청, 2010: 100).

또한, 민간경비는 범죄예방이라는 치안정책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국가의존성이 강한 자율방범의식을 심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국가의 중요시설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깊이 파고들어와 정착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간의 안전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그 범위와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안향권 외, 2007: 94).

범죄예방과 위험발생의 예방 및 제거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비의 주체에 따라 공경비와 민간경비로 구분할 수가 있다. 공경비는 그 주체가 국가기관이며 경찰이 대표적이고, 민간경비의 주체는 일반 사인(私人)이며 「경비업법」상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체이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대상자는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 특정인이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질서 유지기능을 담당하는 공경비와는 차이가 있다. 민간경비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는 그 특성상 사적 자치의 계약에 따른 특정인의 보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경비서비스를 그 특정인만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치안서비스에 대한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는 공공성을 지니고, 특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영업적 측면에서의 경비업자에 대한 영리성도 배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경비는 공공성과 영리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이민형, 2010: 12-14).

2) 민간경비의 한계

(1) 전문적 경비인력의 부족

전문적인 민간경비인력의 운영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자격과 자질을 갖춘 경비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인력채용과 관련하여 경비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근무조건과 대우 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한 자질과

교육수준을 갖춘 경비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규모 민간경비업체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민간경비인력의 자격조건 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비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민간경비 산업이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영세한 민간경비업체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고급경비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기기와 설계 등과 같은 특정 전문분야에서만 고급경비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의 증가와 다원화·복잡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구조변화에 걸맞게 고도의 기술과 훈련을 겸비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민간경비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학력 상향조정은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민간경비원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신원조회작업이 결여되어 있어서 민간경비원 지원자의 신원조회작업에는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조회는 지원자의 동의하에 심도 있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신원조회작업은 대부분 지원동기, 경력,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 등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신원조회작업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업체 직원들이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김병준, 2005: 142-144). 따라서 민간경비원 신규채용 시 신원조회작업을 강화하여 부적합한 민간경비원은 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위기관리라는 직무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적인 직무분야로서 이는 위기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사회의 안전을 보호 하고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박동균, 2008: 133-134). 이러한 부분은 민간경비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경비인력을 채용할 때 경찰과 협력하여 엄격한 신원조회확인을 한 후 신분이 확실하고 우수한 경비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2) 비현실적 경비지도사 제도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7년 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을 시작으로 경비지도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제12회 경비지도사 시험을 실시하여 기계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지도사 2,991명이 합격하였다. 이중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였으며, 경비업체에 선임되어 경비원의 지도·감독 등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경찰청, 2010: 101-102).

하지만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업무의 구분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5종으로 되어있고 1, 2차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방법분야가 민간경비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에 방법에 대한 이론과목이 누락되어 있고 또한 일반경비지도사가 담당할 호송경비관련 과목과 특수경비관련 과목도 들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민간경비업무를 신변보호에 너무 국한시킴으로서 민간경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원들이 치안과 방법, 방화, 호송 및 신변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공배완, 2006: 68).

또한, 경비지도사의 경우 경비현장에서 경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비지도사 교육과정의 편성과목으로는 경비업무현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비원에 대한 관련 업무 교육을 위해서도 교육과목 수정과 교육 방식에 대한 현실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실무 위주의 교육과 위기관리와 관련된 경비원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교과목 추가와 실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민형, 2010: 140).

(3) 경비업체 업무수행의 한계

민간경비의 역할이 시민들의 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공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인지 고려를 해야 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생활안전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무분별한 영세업체들의 운영을 조정하고,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진입규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만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경비업체들이 업체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수준만을 갖추었거나 허가기준에 부적격한 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경비업체의 양적인 성장만으로는 민간경비산업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민간경비원과 청원경찰을 통한 경비운영의 제도적 이원화는 경비업무의 통일성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비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휘와 감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경비원이나 청원경찰의 경비업무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지휘체계나 책임의 한계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비업무를 위해서라도 청원경찰업무와 민간경비원 업무의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한편, 「경비업법」¹⁾상 민간경비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경비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분명하고, 법정문제로 비화되는 등 민간경비업무의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즉, 경비업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간경비원과 고객의 책임관계와 소재에 대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비업자와 고객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경비업체 대부분이 영세 업체로서 거래상 발생하는 손해를 독자적으로 배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경비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재 경비업자가 고객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써 이행보증보험제도와 공제조합운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객에 대해 경비업무의 사후 보장적 성격을 띠는데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경비업자의 손해에 대한 보장보험제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영세한 경비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방범역량의 강화를 위해 민간경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세제 혜택 등 정부와 관련기관의 제도적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이상원·임명순, 2007: 26).

2. CPTED의 특성 및 한계

1) CPTED의 개념

CPTED의 개념은 “건축과 환경의 제대로 된 설계와 올바른 관리는 범죄의 감소와

1) 경비업법 제26조(손해배상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범행을 어렵게 만들어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들의 환경 속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구조화 한 방법전략”을 의미한다(Crowe, 2000: 34).

CPTED를 단순히 합법적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용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행동에 관한 연구에도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Newman(1972)의 방어공간이론과는 다른 개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건축 및 환경의 잘못된 설계와 관리는 범죄의 증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 및 삶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성립된다. 장소와 범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및 환경 설계를 연구하는 이론과 접근방법에는 CPTED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직 완전한 개념과 이론 및 기법과 실무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CPTED는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지고 채택되고 있지만, 이외에도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상황적 범죄예방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등 장소와 범죄의 관계에 입각한 범죄예방 이론들은 서로 많은 공통점과 함께 각기 다른 독특한 특성과 전통을 가지고 발전해오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적용함으로써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심을 차단하거나 감소시켜주는 실무적인 이론이다(박형민 외, 2009: 37-38). 또한, CPTED 이론은 Newman(1972)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론에서 출발한다. CPTED의 근거 이론을 보면 환경범죄학의 주요 이론들을 보면 고전학파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론, Newman(1971)의 방어공간이론(defensible space),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Wilson과 Kelling(1982)의 깨어진 창문 이론(broken window theory),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기회이론(opportunity theories)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범죄학의 범죄예방 분야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최현식·박현호, 2010: 235).

방어공간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주거공간의 건축설계를 통해 예방될 수 있으며, 감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거리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범죄자의 침입 및 도주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건물구조를 설계하는 등 이미 만들어진 환경의 설계를 변경하면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영제, 2007: 37). 이러한 Newman의 이론은 Jeffery에 의하여 CPTED로 정립되었는데, 범죄행위를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에 의한 결과로 보고,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설계기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박영주, 2010: 59-60).

현대적 관점에서 CPTED의 개념은 “특정지역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적 특성을 강화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발견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범행의 성공가능성을 현저히 낮게 인식시켜 범죄를 억제시키기 위해 사회의 물리적·사회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장차 발생이 예견되는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치안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영제, 2007: 39),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작용한다.

첫째, 자연적 감시원리(natural surveillance)이다. 범죄에 노출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범죄인, 피해자, 장소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일반인들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및 조명과 창문을 배치하고, 경찰이 자주 순찰을 행하는 원리이다. 둘째,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이다.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행위의 노출위험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경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경비원이나 잠금장치를 활용하는 원리이다. 셋째, 영역성(territoriality)이다. 특정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사용 공간을 외부지역과 구별시키기 위해 상징물 등을 통해 범죄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넷째, 자연스런 감시강화 활동의 지원(activity support)이다. 공공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및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범죄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활동의 지원이다. 다섯째,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의 원리이다. 특정 시설물이나 공공장소의 훼손을 개선하고 무질서와 불법이 허용되지 않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처음 설계된 시설물처럼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유지 및 관리의 원리이다.

2) CPTED의 특성

CPTED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와 범죄의 기회차단을 위해 학교나 도시공원, 주거단지 등에서 최근 사례연구²⁾가 진행되었으며, 거시적인 접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범죄와 환경문제를 동일시하는 CPTED 전략은 주거단지

는 물론, 학교나 도시의 여러 공공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고 소규모 지역과 특별한 공공시설에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CPTED 원리는 범죄를 야기하는 환경적 변인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상호작용하는가를 이해함으로써 해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범죄행동의 기회모델에서 유래한다. 셋째,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기초를 둔 CPTED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성취하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지만, CPTED와 달리 많은 프로그램들은 단기적이거나 근접한 목표와 적절한 조치를 발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넷째, CPTED는 개인적인 조치보다는 협력해서 행동하도록 주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 CPTED 프로그램을 공공분야, 사회경제분야, 경찰 등과 같은 관할 시의 여러 부서 간은 물론 여러 학문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보증할 수가 있으며, 법집행과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을 경찰지역사회관계의 개선결과와 조정할 수가 있다. 여섯째, CPTED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미쳐 도심 지역을 포함한 지역사회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단 기업의 경영자, 투자자 그리고 기타 시민들의 전체적인 노력이 범죄와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지역사회의 일체감과 응집성이 개선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 현존 프로그램에 통합시킬 경우 교부금, 대부금 그리고 지역사회개발기금을 부여하기 위한 추가적인 권한을 제공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CPTED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관리능력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적 의견을 창출할 수가 있고, 그 능력은 현존하는 시민조직 또는 도시기관 속으로 통합될 수가 있다(양진석, 2010: 41-42).

- 2) 박미량(2011)의 연구에서는 2010년 7월 2일~7월 17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총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안전 증대를 위한 CPTED 사례연구에서 학교안전증대와 관련하여 제2세대 CPTED를 통한 범죄예방가능 증대전략으로 사회적 응집성, 지역사회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성철(2011)의 연구에서는 2011년 4월 4일~4월 6일까지 아산·인천·경기지역 공·사립유치원의 대상공간을 중심으로 가시성, 출입통제(통제장치, 구조, 강도), 영역성, 관리상태(모니터링, 매뉴얼,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강용길(2011)의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 18일~12월 22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광역권·도시지역권 근린공원에 대해 실시하였고, 공원시설 안전성 평가지표의 선정기준은 CPTED 원리 중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의 활성화, 유지관리 등 5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공원안전성 체크리스트(송은주 외, 2009: 239-240)와 공원의 범죄발생현황 분석결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KSA 8800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반규격'에서 공원 및 공공 가든의 환경설계전략(2008: 43-44), 서울시 재정비(뉴타운-범죄예방 환경설계)지침(2008: 25), 한국셉테드학회의 '아파트 지역 셉테드 인증의 평가에 관한 연구'(2010: 68-76)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공원시설 안전성 평가지표개발, 범죄취약시설 개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CPTED 전략의 특성은 지역사회에서 실시되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요소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식을 강화시켜주고, 이웃 간의 결속력 향상은 물론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등을 도모할 수가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담당했던 법집행기관에만 의존하지 않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수준에서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 CPTED의 한계

CPTED의 전략으로 인해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명의 설치에 주목하고, 그 지역설계가 다루는 범위를 감안할 때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설계 방안은 건물의 주동계획과 관련된 지침, 외부 공간 및 관련시설의 배치를 다루는 단지 계획 차원의 지침, 그리고 동질성을 가진 공간적 범위를 다루는 계획차원이 지침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방법상의 경우에는 외부인들로부터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하는 필요성과 적절한 감시의 필요성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도한 식재를 삼갈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는 감시의 시선의 잘 미치는 위치에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가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단지계획 차원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고려해야하는 사항으로는 우선 외부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단지 내 상가나 문화시설 등과 주거동과의 영역적 구분이 필요하다(장예진, 2008: 308-309).

또한, 알콜이나 약물에 취한 자와 같이 비이성적인 범죄자들은 CPTED 전략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이 낮지만, 다른 모든 범죄방지대책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그러므로 CPTED 전략의 고유한 한계로써 비이성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무용성이 지목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인구통계적 역동성이 부정적이면 CPTED 전략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긍정적이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Saville & Cleveland, 2003).

따라서 CPTED가 지역사회의 충분한 참여가 없고,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의 강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요새적인 심성이 생성되어 시민과 이웃들이 벽과 울타리 그리고 요새화된 자신의 집안으로 숨게 된다.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거리의 눈'과 활동을 촉진시키도록 고안된 CPTED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박기범, 2009: 148).

Ⅲ.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성과 융합 필요성

1.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성

아래의 <표 1>이 보여주듯이 민간경비의 분야에서도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경비 영역을 담당하는 기계경비의 시장규모는 CCTV시스템이나 출입통제시스템의 시장 규모보다 큰 규모이며 매년 10%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기계경비서비스 시장은 다른 경비시스템 시장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성장률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비관련 산업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계경비는 다른 업에 비해 비교적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기계경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정태황·소승영, 2010: 156),

이는 민간경비 산업의 비용이 저렴한 영역에서 좀 더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1> 기계경비시스템 기술의 시장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비율								
CCTV시스템	6,200	31.6	6,675	32.0	7,509	32.4	8,373	32.3	9,461	31.5
출입통제시스템	2,825	14.5	3,104	14.8	3,437	14.9	3,856	14.9	4,336	14.4
침입경보시스템	1,643	8.4	1,800	8.6	2,214	9.6	2,723	10.5	3,240	10.8
기계경비서비스	8,900	45.5	9,300	44.5	10,000	43.2	11,000	42.4	13,000	43.4
합계	19,568	100	20,879	100	23,160	100	25,952	100	30,037	100

자료: 정태황·소승영, 2010: 156면 재인용.

민간경비시스템은 CPTED와 같이 다양한 학문적 영역과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CPTED에 비해 좀 더 국지적인 장소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본질적으로 과거의 인력 위주 경비업무와 활동에서 발전하여 최첨단 전자장비와 기계설비 위주의 경비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민간경비시스템이 계획수립과 시스템 설계 및 적용 등 CPTED와 유사한 설계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CPTED가 자발적인 범죄예방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 민

간경비시스템에 부속된 전자장비와 기계설비를 통해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의도를 일부 저하시키고 범죄 발생 후 전자장비와 기계적인 경보에 따라 경비인력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하거나 기계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범죄예방에 보다 치중한다고 할 수 있다. CPTED와 민간경비시스템을 상호 비교하면 CPTED가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환경, 건축물, 전자장비와 기계설비 등을 종합하는 다소 완만한 체제인데 비해 민간경비시스템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해요소가 안전구역 내에 침입 또는 침범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CPTED에 비해 물리적이고 환경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접근을 통제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주일엽·조광래, 2009: 178-179).

2. 민간경비와 CPTED의 동질성

민간경비의 활동영역과 CPTED의 방어공간 영역설정에 대한 공간적인 접근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경비의 역할에 대한 민간경비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개념을 원용하여 설명할 수가 있다. 뉴만(Newman)이 제시한 방어공간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써 준사적 영역(semi-private area), 사적 영역(private area), 준공적 영역(semi-public area), 공적 영역(public area)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가 있다. 일상생활공간에서의 이러한 영역설정은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 건물 등 여러 공간에 응용하여 설명할 수가 있다(Newman, 1973: 8-10).

최근 들어 활용되고 있는 민간경비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범죄발생 다발지역(hot spot) 또는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 경찰청 또는 민간경비업체 차원에서 중앙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모색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민간경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CPTED와 민간경비시스템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주일엽·조광래, 2009: 179), 이러한 민간경비시스템은 CPTED에서 요구되는 방어공간을 고려한 설계와 범죄예방을 위한 영역을 확보해야만 한다.

3. 민간경비의 CPTED의 융합 필요성

민간경비의 영역과 CPTED의 영역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방어적인 공간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간경비와 CPTED를 적용할 경우에 누구나 상용하는 일반 길거리에 개인이 사비를 들여 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한 영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민간경비와 CPTED 각각의 영역설정은 무의미하고, 적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경비의 주요 고객은 단지 사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최근 민간경비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시설이고 이러한 정부의 공공시설에서 시설 내의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공적인 공간이다. 즉,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 경찰이 투입되어 안전관리활동을 하는 데에는 경찰자원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나 청원경찰과 같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민간경비가 항상 사적인 영역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공간 역시 관리주체가 중앙정부 내지 지방정부라는 점이며, 이들 각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적 차원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즉, 관리주체가 시설 내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경찰에 의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차원에서 민간경비 등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치안서비스로서 민간경비가 개입하는 정도는 사적인 성격이 강할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최선우, 2008: 75-78).

사적인 공간이나 혼성 공간에서의 범죄예방의 문제는 그 공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주체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소유권의 측면에서는 사적이지만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모호성에서 범죄예방의 관리상 구조주의적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구조주의적 모델에서는 사람들의 공적인 삶의 상당부분이 소유권적 측면에서는 사적인 공간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중시한다(Shearing & Stenning, 1983: 493-499).

IV. 민간경비와 CPTED의 상호의존성

1. 민간경비의 영역확대에 따른 상호의존성

민간경비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예방적 활동을 의미하고, 주로 범죄로 인한 재산과 인명에 대한 보호업무에 국한되었지만, 오늘날의 민간경비는 자산보호, 보안서비스, 출입통제, 환경설계, 바이오 메트릭스 모니터링, 사이버 보안 등으로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김성언, 2004: 9). 또한 과거 인력에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CCTV를 비롯한 기계경비의 분야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민간경비업체도 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고 수익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다. 다만 기계경비는 여러 감지기의 오작동 CCTV의 모니터링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양적팽창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질적인 팽창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CPTED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민간경비의 영역이 아파트단지나 공장을 비롯한 시설물 전체 등으로 물리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CCTV나 출입차단시설 등 기계 및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CPTED의 방어공간 개념과 같은 저비용 구조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방어공간의 영역설정은 민간경비와 CPTED의 영역 및 활동 정도를 결정짓는다는 점이다. 경찰은 모든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적공간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경찰이 평상시에 범죄와 같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공간은 주로 길거리와 같은 공적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 가운데 방범심방활동이 있어 관할구역 내의 각 가정, 기업체, 기타 시설을 방문하여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계몽과 상담 및 연락을 행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주민의 협력을 얻어 예방경찰상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정경선, 1998: 108).

결국 사적영역에 대한 경찰의 범죄예방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경비의 영역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영역은 사적영역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범죄예방을 위한 영역의 확대이고,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방어영역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2. CPTED의 개념변화에 따른 상호의존성

범죄예방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지금의 실정을 고려하면, 도시계획과 건축 및 환경을 책임지는 건설교통부, 자치단체, 계획가, 설계사 등은 CPTED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찰과 협력하여 구축해야만 한다. 또한 경찰도 신뢰성과 구체성 있는 범죄통계를 관리 및 산출하고 연구와 협의를 위해서 관련 분야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범죄전문가가 아닌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가 그리고 자치단체도 공학자가 아닌 범죄와 경찰 전문가도 혼자서는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CPTED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을 실현할 수가 없다. 나아가서 사회과학과 공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과학적인 시도를 통해 GIS,³⁾ Space Syntax,⁴⁾ ITS⁵⁾ 등의 기술 활용과 함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박현호, 2008: 22-23).

CPTED는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은 과거에 주목을 받다가 현재는 일부 주에서 인증 등으로 도입되어 있다. CPTED가 국가별로 상이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문화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CPTED도 과거의 원리와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CPTED가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사적영역에서의 활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경비와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결국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범죄자들에게는 범행의 기회를 감소시켜주고, 일반시민들에게도 범죄의 두려움을 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도시환경과 구조는 범죄통제의 의무를 가진 경찰이 전체적 또는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민간경비와 CPTED가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상호협력적인 범죄예방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은 지형과 공간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교통·통신 등과 같은 지형 관련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4)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은 University Collage London의 Bill Hillier, Julianne Hanson등이 제시하여 건축과 도시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공간분석방법이다. 공간구문론은 직관적인 공간의 분석을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5)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은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교통시스템으로서, 일반적으로 ATMS, ATIS, APTS, CVO, AVHS와 같은 서비스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3. 민간경비와 CPTED의 상호의존성을 통한 발전가능성

민간경비와 CPTED는 범죄예방을 담당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탄생과 발전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이한 길을 걸어왔다. 자본주의의 논리로 보자면 민간경비는 영리성을 CPTED는 공익성을 추구해왔다. 물론 최근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CPTED를 접목한 방법하드웨어를 제작하여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CPTED는 현재도 영리성보다는 공익성이 강하며 민간경비는 공익성도 존재하지만 영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영역과 CPTED의 방어영역은 범죄예방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태생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서로간의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받아들여야 한다. 민간경비는 공익성에 더 관심을 가지므로써 영리성을 희석시키고 CPTED는 영리성을 더 접목하여 기업이 더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민간경비업체나 방법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기업은 CPTED의 효과성과 규제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CPTED의 공익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영리성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간경비와 CPTED는 공적공간보다 사적인 공간에 더 충실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간의 영역에서도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 사적인 공간의 소유자 및 이용자는 자신의 영역을 적절한 상태로 보존·유지하기 위하여 외부침입에 대한 일정한 차단조치 내지 방어벽 등을 구축할 수 있다(최선우, 2008: 75-76). 이러한 차단조치나 방어벽은 민간경비와 CPTED가 모두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이며 사적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민간경비에 CPTED의 원칙을 적용하여 비용을 저감시키고 CPTED에 민간경비의 기술 및 방법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1988년 올림픽과 1990년대의 경제성장기에 민간경비분야는 국민의 소득향상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즉 범죄예방을 위한 개인의 비용지불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수요 증가에 따른 보안의 공급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안전은 시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졌고, 보안상품은 시장논리에 따라 산업화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또한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고 그 보안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에 의해 치안활동이 전개되던 공간들이 민간부분에 의한 치안활동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정착되어

갔다(공배완, 2010: 66-67).

CPTED도 저비용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투자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기계경비와 인력경비에 치우치면서 한계에 다다른 개인의 비용지불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 CPTED의 원리와 원칙을 활용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따라서 민간경비시장이 CPTED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현재의 경비시장에 부흥하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비용이라는 인식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민간경비는 국가가 담당하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와는 달리 범죄예방에 국한된다는 업무특성상의 한계를 지니지만, 특정 법률에 의해 국가의 치안서비스를 실시해주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영리성도 지니는 양면성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민간경비의 공공적이고 영리적인 특성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전통적으로 범죄자에 대해 초점을 두는 전략이 아닌 거시적이고 환경 공간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건축설계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환경의 방어적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여주는 방어공간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범죄예방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CPTED는 범죄예방에 있어 전통적인 접근과는 달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전통적인 범죄예방 전략이 넓은 범주에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범죄예방 정책이라면 CPTED는 특정행동에 해당하는 범행과 그 기회를 억제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범죄예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의 범죄예방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고려하여 융합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범죄예방에 대해 민간경비와 CPTED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지만, 접근 방법

과 주체 그리고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민간경비와 CPTED는 특성과 한계 및 종합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므로 민간경비의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발전과 범죄예방에 대한 CPTED의 방어공간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경비 시장이 최근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일부 견해가 존재한다. 1988년 올림픽 이후 급속히 성장한 민간경비 시장은 최근 첨단 기계경비를 통해 성장의 한계를 개선하려고 모색하고 있다. 물론 사업합리화, 사업다각화 등의 경영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민간경비 시장의 본래 특성과 존재이유를 생각한다면 성장의 한계를 CPTED를 통해 일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경비 인력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CPTED교육과 민간경비가 담당하고 있는 사적영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용길 (2011). 도시공원내 범죄취약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셉티드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 공배완 (2006). 한국 민간경비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12, 51-72.
- 공배완 (2010).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7(2), 51-71.
- 김병준 (200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언 (2004).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의: 치안활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계약적 통치의 등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제 (200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35-61.
- 김영환 (2008). CPTED 기법을 적용한 주거지역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3(5), 273-278.
- 박기범 (2009).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한국지방자치연구 11(2), 133-154.
- 박동균 (2008). 민간경비원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경호경호경비학회지 15, 121-138.
- 박동균, 이민형 (2011). 한국 민간경비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11-41.
- 박미량 (2011). 학교안전 증대를 위한 물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연결.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셉티드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 박성철 (2011). 공사립 유치원 사례조사를 통한 보육시설 범죄예방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셉티드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 박영주 (20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9(1), 55-82.
- 박현호 (2008).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필요성 고찰. 인문사회논총 15, 3-28.

- 박형민, 황지태, 황정인, 황의갑, 박경돈 (2009).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의 제도화 방안(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12.
- 안황권, 공배완, 김상진, 박현호, 서진석, 이창무, 임준태, 정웅 (2007).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서울: 진영사.
- 양진석 (2010). 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도시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형 (2010). 한국 민간경비제도 정립을 위한 경비업법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원, 임명순 (2007).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1-32.
- 이현희 (2007). 시큐리티 산업의 성장요인과 국내시장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3, 383-402.
- 장예진 (200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과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301-316.
- 정태황, 소승영 (2010). 기계경비의 발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2, 145-168.
- 주일엽, 조광래 (200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과 시큐리티시스템(Security System) 간 연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9, 165-185.
- 최선우 (2008). 치안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과 민간경비의 활동영역. 경찰연구논집 3, 61-81.
- 최현식, 박현호 (2010). CPTED 설계요소에 대한 공동주택주민의 만족도 인식: CPTED 적용수준별 집단과 거주기간, 범죄예방노력의 교호작용효과.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2, 231-258.

2. 국외문헌

- Arthur, J. Bilek, & Peter, P. Lejins. (1997). *Private Security*. Cincinnati, Ohio: Anderson Publishing Co.
- Crowe, T. (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2nd ed.*,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Gamman, L. (2007), Design Against Crime as Socially Responsive Innovation?: presented at 2007 ECCA conference and the international crime science conference.
-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1973), *Report on the Polic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Newman, O. (1973), *Defensible Spa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Saville, G., & Cleveland, G. (2003). An Introduction to 2nd Generation CPTED: Part 1. *CPTED Perspectives*, 6(2), 4-8.

Shearing, C., & Stenning, P. (1983). Private Security: Implications for social control. *Social Problems*, 30(5), 493-506.

【Abstract】

A Study on Interdependence of Private Security and Techniques of CPTED

**Lee, Jung-Duk
Lim, You-Seok**

In modern society, citizens' quality of life aspects of safety an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re actively considering the incidence of crime prevention in advance. It also can be quite important elicit the interest of who community members through effective crime prevention strategies.

For crime prevention policies and techniques over time as more scientific and advanced methods are made. Today, A typical crime prevention strategies is private security zones an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is a corresponding to the new strategy. CPTED is a diversification can be called a crime prevention approach that emphasizes the principle of natural surveillance, access control, territoriality, activity support,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e defensible space of the space area related to crime prevention setting the activities of private security and CPTED determine. Also, the reality of crime prevention and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space. The emphasis on proactive prevention of crime in moder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ime how to approach differing perspectives and disparate aspects of private security and CPTED. Technical and professional areas that overlap to some extent in a homogeneous aspect. Ultimately, CPTED is a crime prevention through space and environmental approach for crime.

In addition, Ultimate goal of convergence, crime prevention, with the same or higher is required to study for the area after looking for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private security and CPTED.

Key Words : Private security, Electronic security system,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CPTED), Crime prevention, Fear of crime